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인력 양성 본격화

시, 직업계 고교 교장 간담회  
지역인재 전형 등 다양한 의견  
내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광주 직업계고 교장들이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광주형일자리 인력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에 따라 자동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8일 시청 협업회의실에서 지역 직업계고등학교 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시교육청 및 직업계고등학교장, ㈜광주글로벌모터스지원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소개하고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양산체제에 도입하는 시점에 맞춰 지역 직업계고등학교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교 교장들은 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지역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형 도입 및 공업계, 상업계 등 고등학생도 채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의 다양한 의견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및 자동차 관련 업체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에 실습기지를 지원하고 자동차 관련 전문기술을 익혀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경제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직업계고 취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취업정보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며 지역 직업계고 등 고등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아직 광주글로벌모터스 인력채용에 대한 수요 및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향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정착되는 시점에 오늘 제시해 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민 참관단 25일까지 모집



'할머니랑 나는 단짝친구' 사회보장 관련 민관협력기구인 '광주시 서구 양동 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독거노인과 아동들이 1대 1 결연을 맺어 정서교감을 나누는 문화체험 사업인 '할머니랑 나는 단짝친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독거노인과 학생 등 26명이 화순 치즈체험학교를 방문해 직접 치즈와 피자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 북구가 재난사고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안전의식이 높이기 위해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직접 체험하고 참관할 주민 모집에 나선다. 북구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일차(오는 30일)에 실시되는 '테러 복합 재난 대응 현장훈련'에 참여할 주민 참관단을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28일은 참여 기관·단체 소속 직원 비상소집 훈련, 29일에는 화재 대피 및 상황전파 훈련이 이뤄진다. 주민 참여가 가능한 3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북구 오룡동의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등 20개 유관기관·단체와 4개의 민간 기업이 참여해 건축물 붕괴·화재·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의 상황으로 '테러 복합재난 대응 현장훈련'이 진행된다. 31일과 11월 1일에는 대형마트·종합병원·사회복지관 등 대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주민 참관단 참여는 북구 주민(단체도 가능)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ifujin@korea.kr)이나 팩스(062-510-1446)로 신청하거나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877명 방진마스크 지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광주시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환경미화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원한다. 방진마스크 지원은 도로변 청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제안을 광주시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회 추경에서 예산

을 확보하고 지난 18일 5개 자치구에 방진마스크를 전달했다. 5개 자치구는 877명의 가로·가정청소 환경미화원에게 방진마스크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청소차(저상차) 교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야광 안전벨트 지원, 환경미화원 청소함 설치, 쉼터공간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내년에는 환경미화원 단체·시·구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시 단위의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늘리고, 만족도 높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정종임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산구,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지난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2019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선>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진흥원 등의 후원으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소통과 SNS 활용 현황을 종합평가하여 주는 상이다. 광산구는 'SNS 서포터즈 및 1인 크리에이터' 운영, SNS 채널별 이용자층에 맞춤형 콘텐츠 생산·제공, SNS 글쓰기·영상 제작 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시민과 소통

하고, 1인 미디어시대를 선도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정책과 직접민주주의를 접목한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맛과 멋을 트렌디하게 알리는 '맛있는 광산 스토리텔링', 공공재인 구 SNS 공간을 시민과 공유한 '홍보대행사 광산' 등 콘텐츠는 시민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의 정책을 알리는 SNS를 넘어 시민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SNS, 시민이 함께 행복을 상상하고 만들고 나누는 SNS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서구, '이병한 교수 유라시아 전문' 아카데미

'유라시아 전문'의 저자 이병한 원광대학교 교수가 21일 오후 2시 서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제9회 서구 아카데미 강사로 나선다. '이병한 교수의 유라시아 천원 전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의에는 1000명 간의 유라시아 대륙 대장정을 다녀 온 이교수의 경험담과 유라시아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교수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학 국제학대학

원, UCLA 한국학연구소, 베트남 하노이 사회과학원 등에서 수학했다. 또한 프레시안 기획위원으로 3년 여정의 '유라시아 전문'을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방 문명의 중흥'을 견인하는 'Digital-東學' 운동을 연구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주민과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국제사회를 분석하고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를 무료이며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체험단 모집

광주시는 시민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시범사업 체험단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1회 800m 최대 250원, 월 최대 1만1000원)돼 다음 달 교통비에서 할인되는 카드다. 다만 매일 교통카드를 3회 이상 사용해야 마일리지 적립된다. 10월부터 광주를 포함한 전국 11개 주

요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2020년부터는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서 본 사업이 시행된다. 모집인원은 만 19세 이상 선착순 1600명이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www.alcard.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월 최대 30% 할인 효과가 있어 교통비 절감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사회·환경적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매매 - 7억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문의. 010-6834-7400

